

 <p>DATA 1 FEBRUARY</p>	 <p>COUNTRY KOREA</p>	 <p>CATEGORY NAUTICAL</p>	 <p>UMV 150</p>
--	--	--	--

# 요팅매거진

## Aston Martin AM37는 보트쇼 현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파워요트로 기록되었다.

데이크루저의 새로운 컨셉과 색상을 제안했다고 평가받았다. Aston Martin AM37는 독특하고 세련된 외관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날렵한 스포츠카를 떠올리는 스포티한 외관과 간결한 데크 디자인으로 개성을 살렸다.

Aston Martin AM37은 Aston Martin이 2년 동안 전념한 개발과 설계의 결과물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디자인, 장인정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Aston Martin의 EVP인 Marek Reichman과 그의 디자인팀은 Mulder Design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순간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데크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다. 두 개의 조종석과 깊은 C자형의 좌석으로 채워졌으며, 좌석은 선베드처럼 활용할 수 있다. Below 데크에는 컴팩트하지만 실용적인 실내 라운지가 위치한다. V자형의 좌석과 중앙의 테이블이 마련되며, 휴식과 다이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더불어 날렵한 외관에 걸맞는 항해 퍼포먼스와 50노트까지 질주할 수 있는 스피드를 보여준다.